"지역제품 우선계약 신고센터 설치를"

정헌율 익산시장, 간부회의서 강력 추진의지
토요상설공연·서동축제 등 직원 참여도 당부

정헌율 익산시장이 22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감사담당관에 신고센터 설치를 지시하며 지역 업체 우선계약의 강력 추진의지를 밝혔다.

정 시장은 "지역 업체 우선계약 및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추진에 있어 부서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는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것이다"며"이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제품 사용을 권장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신고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문화재야행에 이어 지난 주말 왕궁리유적에서 열린 상설공연도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다"며"익산의 야간 관광명소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확보해 지속 추진하라"고 말했다.

덧붙여 500만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토요상설공연, 문화예술의 거리, 서동축제 등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와 축제에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정헌율 시장은 연어 프로젝트의 현실화 방안도 제시했다.

정 시장은 "익산은 KTX익산역, 원광대학교 병원 등 은퇴자 유입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 은퇴자 유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 기본소득에 더해 추가소득원이 필요하다"며 그 대안으로 "기업 유치 시 사전 인력수요를 파악해 은퇴자의 재취업을 유도하고 마을단위로 공동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일명 '마을연금제도'의 시범 실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도 "도시 열섬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지역의 많은 공원들이 이름도 없이 몇 호 공원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며"시민들이 공원에 애착을 갖고 애용할 수 있도록 주민합의를 거쳐 공원이름 짓기 운동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대학중점연구소 콜로키움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원불교사상연구원 대학중점연구소는 오는 24일 제19차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종교로 여는 평화와 통일의 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콜로키움은 서울신학대 이명권 교수가 초청돼 20세기 초 인도와 한국에서 종교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회변혁운동 사례를 바탕으로 오늘날 종교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미래의 숲 조성
시민참여 헌수운동 본격화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시가 미래의 숲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헌수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2028년까지 500만 그루의 나무심기를 위해 범시민 참여 헌수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산산림조합이 총 4,500만원 상당의 사업추진 의향서를 제출하고, 산업단지 내 생말공원에 대왕참나무 근원경 12㎝의 큰나무 80본에 대한 헌수 및 시공을 진행해 미래 숲 조성에 동참했다. 또 대야면 한 시민도 반송 23그루를 기증해 시는 중앙동 신청사 주민센터 화단과 월명동 신흥공원 등에 식재할 예정이다.

동참하기를 원하는 시민 또는 단체는 시 산림녹지과(☎454-4454)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본격 시동'

정헌율 시장, 중앙부처 방문 홀로그램 규제 자유특구 등 반영 건의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서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 18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데 이어 22일에는 정헌율 시장이 직접 중앙부처를 찾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분주한 활동을 시작했다.

정 시장은 이날 익산시의 주요 현안사업을 추려 세종시에 있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을 방문해 국가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등을 면담하고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등 면담에서는 교도소세트장 보조 촬영장 조성과 북부청사 리모델링 공사의 사업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별교부세를 요청했다.

익산시가 내년 확보할 주요 신규 사업은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460억원) ▲익산국가산단 재생사업(210억원) ▲익산 고도지역 탑방거점 조성사업(214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 식품창업 허브 구축(288억원) ▲국가식품 클러스터 가정간편식(HMR) 지원센터 구축(267억원) ▲익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건립(83억 원)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416억원) 등 굵직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22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이와 함께 계속사업으로는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사업(523억원),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구축사업(HR)(300억원),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3,418억원), ▲남부2~3, 북부2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365억원),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260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역사가문화로)(250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식품 원료비축공급센터 구축(195억원) 등이다.

정헌율 시장은 "중앙부처 예산편성이 마무리되는 5월까지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이 중앙부처 예산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지역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내년에도 역대 최고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생활 공구 대여 시범사업 지역 확대

군산시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시범운영했던 '생활 공구 무료 대여사업'을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한다.

생활 공구 대여사업은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공구를 무료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여해 줌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8개 지역에서 생활 공구 대여사업을 실시한 이후 전 지역으로 확대운영해 주길 원하는 여론을 수렴해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여할 수 있는 공구는 충전임팩트드라이버, 가정용 공구세트 등 18종의 생활 공구와 새롭게 추가된 라돈측정기 및 전자파 탐지기이다.

관내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여 신청이 가능하다. /군산=김정훈 기자

낭산 폐석산 정상화 민관공동위원회 개최

복구 상황·개선방안 논의

낭산 폐석산 복구지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정헌율 시장이 발 벗고 나섰다.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환경부, 전라북도 등 관계 행정기관과 낭산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낭산 폐석산 정상화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22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민관공동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정헌율 시장,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최기재 전 시의원 등을 비롯해 김학림 낭산농협 조합장 등 낭산지역 기관단체장 12명이 참석해 현재 복구 진행 상황을 되짚어 보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자문위원으로는 익산시의회 김태열, 유재동 의원과 전라북도의회 김기영 의원,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김강주 교수가 참여해 힘을 보탰다.

정헌율 시장은 "지난 11월부터 불법매립된 폐기물을 이적하고 있으나 그 양이 방대하고 전국 매립장 여건도 여의치 않아 그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조속한 문제해결과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 함께 참여하는 위원들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배숙 국회의원도 고통 받고 있는 낭산 주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협력사항을 찾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지구의 날 맞아 청암산 일원 환경정화 활동

군산시 수도과 직원들이 '지구의 날'을 맞아 최근 옥산면 청암산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환경정화 봉사 활동에는 30여명의 수도과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청암산 주변 주차장과 제방 주변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수도과 직원의 실무 현장체험을 겸해 봉사후 청암산을 등반하며 직원 간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종신 수도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해 아름다운 군산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신시도 생활환경 전면 개선

전북도 '아름다운 주거 경관 공모' 선정 따라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고군산군도의 첫 들머리 마을인 신시도의 생활환경이 전면 개선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군산 신시도 마을이 전라북도에서 주관한 '제1회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바다향 머금은 산들 프로젝트 사업은 도비와 시비 각각 6억2500만원씩 총 사업비 12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군산시는 고군산 군도의 첫 들머리인 신시도 마을의 취약해진 생활환경을 개선해 고군산을 대표하는 마을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사항으로 신시도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설치하고 고운 최치원 선생의 전설이 담긴 테마 옹벽 조성, 낡고 오래된 지붕 및 담장에 통일된 채색으로 시인성 확보 등 개선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시 건축경관과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 될 신시도 국립휴양림 조성사업 및 어촌뉴딜 300 등과 이번 공모사업을 연계해 신시도를 고군산 군도를 대표하는 관광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